

# “자신만의 동굴을 깨는 것이 인문학”

“철학은 거창한 게 아니다. 자신만의 우상의 동굴을 깨는 것이 철학이고 인문학이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많은 동굴이 있다. 그 동굴 중 어떤 것이 이웃을 힘들게 한다. 사람답게 사는 길은 각자의 동굴을 면밀히 검토해 그것을 깨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도처에서 들려오는 인문학의 위기는 적어도 철학 북 콘서트장에서는 판 세상의 얘기로 들렸다. 지인들과 혹은 자녀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100여명의 시민들은 모처럼 열린 인문학 강좌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남대학교 비정규교수 학술모임인 ‘무등지성’(대표 장복동 박사)은 지난 26일 오후 3시 광주 충장서점에서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를 열었다.

이날 철학 북 콘서트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진행한 ‘지역서점 문화활동 운영지원’ 대상에 선정된 충장서점이 ‘무등지성’과 연계해 마련한 것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인문학 구현에 초점을 두었다.

이날 1부는 철학자 박해용(전남대 비정규교수·철학)씨가 ‘철학 진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씨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반문의 중요성을 화두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나는 무엇인가?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사후에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등의 질문은 사소한 나머지 쉽게 잊거나 간과하기 십상인 물음이다. 가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며 인문학의 기본 정신이다”

소크라테스와 송래문 화제 사건 등을 낚아채며 강의를 이어간 박씨는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혼자만이 아닌 더불어 사는 자세, 이타하여 참여와 연대가 필요한데 이를 바탕으로 바른 생각, 바른 지혜가 쉼튼

## 무등지성, 광주 충장서점서 ‘찾아가는 인문학강좌’ 1부

### 철학자 박해용씨 “진리를 위한 소통... 참여·연대” 강조 생활속 근원적 질문 필요성 제기... 2월22일 두번째 강좌

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전남대 강사인 명혜영씨와 극단 ‘허방’ 대표 김영학(전남대 강사) 등을 초청, 인문학을 왜 공부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영학씨는 “마흔이후부터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자신의 존재론적 질문이 바로 인문학의 근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해용씨는 동굴의 의미로 인문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작년 여름 진도에 갔는데 그곳에서 평생 진도를 떠나본 적이 없는 할머니를 만났다. 얼핏 할머니는 자신만의 동굴에 갇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얼마 후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 할머니는 그럼에도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은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작 동굴에 갇힌 자는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늦은 나이에 고전 사랑에 푹 빠졌다는 수강생 박인자(여·62)씨는 “말이 서술시

립대 철학과에 들어갔는데 적응을 못해 경영학과로 전과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실패하고 다시 입시를 치러 교대에 진학했다. 왜 철학과에 가면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하는지 모르겠다. 실용음악처럼 철학도 현실과 밀착된 학문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며 생활속의 인문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목포에서 왔다는 초등학교 교사 우영숙씨는 “5·18이후 광주를 짝사랑한 나머지 무조건 광주와 관련한 행사가 있으면 오게 된다”며 “이것이 나의 동굴이 아닌가 싶어 이제는 무조건적인 짝사랑을 버려야겠다”는 의견을 피력, 박수를 받았다.

오는 2월22일 열리는 두번째 강좌에서는 명혜영씨가 ‘육체라는 필터를 통해 언어를 획득하다’를 주제로 강연하며 6월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료 무료. 문의 062-511-090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 26일 오후 3시 광주충장서점에서 열린 ‘무등지성’의 인문학 강좌 모습.

〈무등지성 제공〉

## ‘무등지성 3기’ 강좌... 2월22일까지 다양한 주제로 ‘눈길’

전남대 비정규교수들의 학술모임인 ‘무등지성’이 개설한 강좌가 눈길을 끈다. 충장서점과 연계한 ‘철학 북 콘서트’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무등지성 3기’ 강좌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아픔을 돌아보고, 드러내고, 치유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1월7일부터 시작된 강좌는 2월22일까지 요일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독문학, 일본학 등을 전공한 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월요일에는 심옥숙(독문학)씨가 ‘카프카의 선고: 선고받은 죽음과 실존을 위한 선택’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또 명혜영(일문학)씨가 ‘해변에 이르는 길 찾기-문학으로 이치메를 이야기하다’, 김경래(사회학)씨가 ‘사회주의 페미니즘-계급과 젠더’를 주제로 화요일과 수요일 강의를 전담한다.

목요일에는 이현주(영문학)씨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를 주제로 강의하며 금요일에는 박해용(철학)씨가 ‘말하기 힐링 아고라3-소크라테스 무덤에 오

### ■ 무등지성 3기 강의시간표

월	심옥숙(독문학)	카프카의 ‘선고’: 선고받은 죽음과 실존을 위한 선택
화	명혜영(일문학)	‘해변’에 이르는 길 찾기 - 문학으로 ‘이치메’를 이야기하다
수	김경래(사회학)	사회주의 페미니즘-계급과 젠더
목	이현주(영문학)	파이데이아 고전 다시읽기: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금	박해용(철학)	말하기 힐링 아고라3 - 소크라테스 무덤에 오디 ‘나는 누구인가?’

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수강료 1만원으로 모든 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 고 이상 청소년도 수강 가능하다. 2월 4일~8일까지 휴강. 강의 장소

는 광주시 북구 신안동 SJ빌딩 2층이다. mudeung0903@hanmail.net. 문의 062-511-090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수채화로 만나는 남도의 빛’

광주·전남수채화협회, 2월17일까지 강진아트홀

고려청자의 비색(翡色) 같은 투명한 수채 물감으로 녹여낸 남도를 만난다.

광주·전남수채화협회는 다음달 17일까지 강진아트홀 전시실과 화랑에서 ‘2013 수채화로 만나는 남도의 빛 특별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효삼 회장을 비롯한 김중안, 김충효, 류 신, 김효삼, 한부철씨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채화협회 회원 64명이 참여한다.

작가들은 남도의 풍광을 수채 물감의 다양한 빛깔로 그렸다. 때로는 정겨운 사계의 풍광이 화사한 색채로 되살아나고, 때로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들기도 한다.

문의 061-430-397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김수옥 작 ‘행복-세 잎 클로버’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 가작 5팀 발표

공식 포스터 활용 최우수상은 당선작 없어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광주디자인센터는 최근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 공모전’ 심사결과 5팀을 가작 수상작으로 선정·발표했다.

모두 1483점이 접수된 이번 공모전 수상 팀은 포스터 부문 신명섭, 차세완씨 등 2팀, 로고 부문 이승현·윤민규, 전병선·국민영, 박수진·조규열씨 등 3팀이다.

이번 공모전은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여 확대와 신진 디자이너 발굴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두 기관은 당초 최우수상(1명·상금 1000만원), 우수상(1명·500만원), 장려상(2명·각 250만원)을 선정, 시상하고 최우수상 선정 작품을 공식 포스터와 로고 등에 활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거시기, 머시기’라는 주제의 의미와 가치를 표현해야 한다는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작품이 없어 가작만 선정됐다. 공식 포스터와 로고는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을 주제로 열린 ‘2012광주비엔날레’는 일본 유명 디자이너 테라이 게이지가, ‘도가도 비상도(圖可圖 非常圖)’를 주제로 열린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업체인 텍스트가 공식 포스터와 로고를 디자인하는 등 그동안 비엔날레 공식 로고와 포스터는 전문업체나 디자인전문가들이 디자인해 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해피실버 문화예술단원 모집 2월1일부터 30명 선착순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는 ‘2013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해피실버 문화예술단 서비스’ 3기 단원을 2월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색소폰, 클라리넷, 플루트로 악기별 30명이다. 응모자격은 복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으로 주 2회, 회당 2시간씩 악기별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북구,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이 후원하는 이번 사업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2만원은 자신이 부담하며 접수신청은 거주지 해당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이후 통 주민센터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제공기관(본 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 062-226-2030.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 ‘계사년 임춘방 써주기’ 2월3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양정식)이 다음달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13 계사년 복을 부르는 임춘방 써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시립민속박물관 현관 로비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지립 이점숙·신암 박용주·지산 이기숙·복천 이옥자씨 등 중견 서예 작가 4인이 참가, 시민들에게 임춘방을 써준다.

시민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임춘방 문구를 작가들에게 제시, 글씨를 받을 수 있다. 참가비 무료. 문의 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 062-613-536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후원 : 남해고속

### 흑산도상리봉 등반및 자유관광

출발일	당일(씩수날 출발)
여행비	주중 88,000원 주말 98,000원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흑산도 왕복패속선 흑산도 중식 제공
불포함	흑산도 버스일주관광 선택 (15,000원)

### 홍도 / 흑산도 특가 이벤트

출발일	3월1일~2일(1박2일)
여행비	주중 158,000원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 흑산도, 홍도 왕복패속선/ 숙박비 (5인이상 합숙)/ 식사비(4식)/ 홍도유람선/ 여행자보험
불포함	흑산도 버스일주관광 선택 (15,000원)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